

中 신종코로나와의 전쟁...사망자 304명

사흘째 매일 40명 넘게 숨져·하루새 확진 2590명 ↑

누적 확진자 1만4380명...춘제 끝나 확산 우려 초비상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과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사흘째 매일 40명 넘게 숨지면서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과 인접 지역을 봉쇄한 데 이어 응급 병원들을 완공하고 중점 지역에 의약품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3일부터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사실상 끝나 고향에서 일터로 돌

아오는 중국인들이 차츰 늘면서 신종 코로나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할 우려에 중국 전역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만4380명, 사망자는 30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2590명, 사망자는 45명 늘어난 것이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위건위가 공식으로 통계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확산세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일일 사망자의 경우 지난달 30일 43명, 31일 46명에 이어 사흘 연속 40명을 넘어서면서 신종코로나가 위협적인 병인을 보여줬다.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1921명, 사망자는 45명 증가했다. 이처럼 전날 사망자는 모두 후베이성에서 나와 이 지역의 신종코로나 전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2일 0시 기준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확진자가운데 2110명이 중태며 328명은 완치 후 퇴원했다. 의심 환자는 1만9544명이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수는 16만3844명이며 이 가운데 13만

7594명이 의료 관찰을 받고 있다.

다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 내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확진자는 지난 1일 669명이 늘어 지난달 30일 762명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이를 연속 줄었다는 점이다. 중화권에서는 홍콩에서 14명, 마카오에서 7명, 대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 확진자는 일본 20명, 태국 19명, 싱가포르 18명, 한국 15명, 호주 12명, 미국·말레이시아·독일 8명, 베트남 7명, 프랑스 6명, UAE 5명, 캐나다 4명, 필리핀·인도·이탈리아·영국·러시아 2명, 네덜란드·리비아·핀란드·캄보디아·스웨덴 1명이다. /연합뉴스

한전공대 법인설립 교육부, 또 다시 보류

서류 보완해 20일 재심

교육부가 한전공대의 법인설립 인가를 다시 보류했다. 오는 2022년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한전은 오는 2월 20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3차 심의 준비를 위해 서류 보완에 착수했다.

2일 전남도,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교육부는 서울에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한전공대 법인설립인가'안을 심사했다. 심사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전 측에 또 다시 법인 인가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오는 20일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한전은 2019년 9월 3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에 필요한 허가신청서와 관련 제출 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계속 심의'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올해 1월 초 교육부가 요구한 보완서류를, 전남도도 교육부에 부영그룹이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한 캠퍼스 부지 '기부약정서'와 관련된 보완서류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한전은 이날 법인설립 인가가 의결되면 지난해 9월 27일 법인 창립총회를 통해 구성한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전남도와 한전은 그러나 이번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보류가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서류를 보완해 3차 심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 설립인가 자체가 까다로운 과정으로 3-4차례의 심사가 이뤄진다면 "한전과 협의를 통해 서류를 서둘러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3차 심의에서는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22년 개교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필리핀서 첫 사망자 발생

중국우한 출신 44세 남성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우한 출신 44세 남성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두케 장관은 이 남성이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38세 중국 여성과 함께 우한에서 온 사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두케 장관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심각한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동안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중상도 호전되고 있었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하면서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우한 출신 중국인 남녀는 지난달 21일 홍콩을 경유해 필리핀에 함께 도착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서는 이들 두 명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필리핀 주재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부의 라빈드라 아비아상에는 언론에 "중국 이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필리핀 내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이자 많은 이들이 감염으로 숨진 우한에서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우한교민 태운 버스 방역 2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을 태운 버스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中 자매도시에 마스크 긴급 지원

우한·광저우시 등 8개 도시에 5만개 지원키로

광주시는 후베이성 우한 등 중국 내 8개 자매·우호도시에 의료용 마스크(KF94) 5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인구 1000만명 이상과 그 이하로 구분해 우한·광저우시는 각 1만개씩, 위양·선양·취안저우시 등 6개 도시는 5000개씩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최초로 시작된 우한시는 광주시와 지난 2007년 우호협력 도시를 맺었다. 특

히 우한시는 지난 여름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5명의 방문단이 참가하는 등 교류를 돈독히 이어왔다. 이번 긴급지원은 그동안의 우의에 기반한 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이용섭 시장은 "우선 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 후에도 우한시 뿐만 아니라 광저우시 등 자매우호도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신종코로나' 치사율 4~5% 수준

기준 추정치보다 2배 높아...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사율을 기존보다 2배가량 높은 4~5% 수준으로 내다봤다. 기준 치사율 추정치는 2.2%였다.

이는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도를 초기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

다는 뜻이다.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이 위험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사율을 4~5% 수준으로 본다 고 밝혔다. 다만 이 치사율은 감염 확산이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새 이름 공모합니다"

3월 재개관...9일까지 조사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이 3월 재개관에 앞서 박물관 새 명칭 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다. 1년 반에 걸친 개보수 과정에서 시설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면서 박물관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87년 개관한 시립민속박물관은 2017년부터 '박물관 개보수 및 역사문화공간 구축' 사업에 들어가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있다. 기존 남도 민속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 콘텐츠에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광주의 역사를 추가했다.

호남 대표 도시로서 원도심인 광주읍성과 충장로, 금남로의 모습을 집적 조영하

고, 조선시대 광주의 진입로이자 임진왜란 등 위기 때마다 의병정 기능을 한 절양루를 재현해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광주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상설전시 콘텐츠 전면 개편으로 박물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명칭변경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 ▲광주시립민속박물관(기존 명칭 존치) ▲광주시립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 3개 안이 도출됐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9일까지 시 홈페이지 팝업게시판, 박물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말레이시아 면세점에 전남 농수산물품 판매장 오픈

전남도가 지난달 31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셀론 면세점에 전남 농수산물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오픈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 운영법인인 하이난 엔터프라이즈그룹(Hainan Enterprise Group)의 슈하 트레이딩(SIEW HA TRADING)과 2000만 달러의 수출협약도 체결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1호 상설 전시판매장은 그동안 마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 악화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 꾸준히 할랄(이슬람교도가 먹

고 쓸수 있는 제품)시장을 두드린 노력의 결과다.

이번 판매장은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주도인 코타키나발루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코타키나발루는 동말레이시아의 관광 중심지로 한국, 일본,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각지에서 찾아오는 유동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남 우수 농수산물품을 판매·홍보하는데 최적지이다. 2018년부터 무안국제공항 직항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안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방·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화순 도곡면 효산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원로 즉시입주 1억1800
- 북구 임동 소방도점 주차 298㎡ 원로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천변 부근 상업지 땅 347㎡ 다세대·원로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면 월거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양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기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외 내장사 사이 추령교대 땅 403㎡ 가계 197㎡ 카페용 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74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목포시 대양동 1중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상항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자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를교환 가능 은행 3억 전세 6억 매도 6-7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 /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 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곡) :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곡) :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http://www.gnue.ac.kr/</p>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박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청 및 비노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청(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